

아케엠주보

사순 제 1 주일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예수님께서서는 사십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마태 4,1-2)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김대순 가브리엘 (+971 56 480 7672)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사순 제1주일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원조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며 죄를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 제1독서

창세 2,7-9; 3,1-7

• 제2독서

로마 5,12-19

• 복음

마태 4,1-11

• 영성체송

마태 4,4

• 입당송 시편 91(90),15-16

• 화답송 시편 51(50),3-4.5-6ㄱㄴ.12-13.14와 17(◎3ㄱ 참조)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복음환호송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믿음의 은혜를 세상에 증언하고 전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더욱 성실히 봉사하게 하소서.

2.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정하신 주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을 살피주시어, 그들이 발전의 참의미를 되새기고, 주님의 진리와 정의를 생각하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3.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샘이신 주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 주시어, 그들이 고통을 잘 이겨 내고 건강을 되찾는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 주시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게 하소서.

“경청과 단식: 회개의 때인 사순 시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는 교회가 모성적 돌봄의 마음으로, 하느님 신비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초대하는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일상생활의 불안과 분심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회개로 향하는 모든 길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의 자리를 마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느님 말씀의 선물과 우리가 그 말씀에 내어 드리는 환대의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이 불러오는 변화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순 여정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그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완성될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기쁜 때입니다.

경청

올해 저는 우선 경청을 통하여 말씀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찰하고자 합니다. 기꺼이 경청하려는 자세는 다른 이와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불타는 떨기 속에서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면서 경청이 당신을 정의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임을 몸소 일러 주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탈출 3,7).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어 종살이하던 당신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해방 이야기는 바로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귀여겨들으신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당신 마음속 생각들을 우리와 나누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경청은 우리에게 현실 속 진실에도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도움으로 우리는 저마다의 삶과 사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에서도 고통과 고난을 겪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알아듣고 이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청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가짐을 기르려면, 하느님께서 당신처럼 경청하는 법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처지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우리의 삶과 사회, 정치 경제 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외침”¹⁾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식

사순 시기가 경청의 때라면, 단식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음식의 절제는 고대의 수덕(修德) 실천이었으며, 회개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식은 바로 육체와 연관되기에 우리가 무엇에 ‘끓주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인식하게 해 줍니다. 더 나아가 단식은 우리가 정의에 대한 끓주림과 목마름을 생생히 느끼게 하고 안주하지 않게 하며 우리의 ‘욕구’를 인식하고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하기에 단식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영적 통찰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는 이 방식을 특징짓는 것, 곧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성취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이해하게 해 줍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지상 삶의

여정 안에서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지만, 그 충족은 내세에 속합니다. 천사들은 이 빵, 이 양식으로 만족합니다. 반면에 인류는 이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기에, 우리 모두는 갈망하면서 이에 이끌립니다. 이처럼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영혼을 확장시키고 그 능력을 키워 줍니다.”2)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단식은 우리의 욕구를 다스리고 정화하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장하여 하느님과 선행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따라 단식을 실천하고, 단식이 자만심으로 이어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를 믿음과 겸손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단식은 주님과 이루는 친교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찌우지 못하는 이들은 올바르게 단식하지 않는 것이기”3) 때문입니다. 단식은 은총에 힘입어 죄와 악에서 돌아서겠다는 우리의 내적 다짐의 가시적 표지로서, 더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절제를 수반해야 합니다. “절제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하고 참되게 만들기”4)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종종 간과 되곤 하는 절제의 한 형태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곧, 우리 이웃을 불쾌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없어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거친 말과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비방과 험담을 삼감으로써, 우리의 언어를 무장 해제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일터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담론에서, 매체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을 헤아려 보고 친절과 존중을 기르도록 노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오의 말들은 희망과 평화의 말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사순 시기는 말씀 경청과 단식의 공동체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성경도 여러 방식으로 이 차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서는 백성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새롭게 하려고 모여서 함께 율법서 봉독을 듣고 단식에 참여함으로써 신앙 고백과 하느님 경배를 준비하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느헤 9,1-3 참조).

우리 본당, 가정, 교회 단체, 수도 공동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순 시기 동안 공동의 여정에 나서도록 부름받습니다. 이 공동 여정에서는,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가난한 이들과 땅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공동체 삶의 일부가 되고, 단식이 진실한 참회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개는 개인의 양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대화의 질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꺼이 현실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의와 화해에 대한 인류의 목마름과 관련해서도 무엇이 참으로 우리의 갈망을 이끄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에게 더욱 귀 기울이게 해주는 사순 시기의 은총을 청합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도 아우르는 그러한 단식의 힘을 청합니다. 그리하여 상처 주는 말이 줄어들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더 넓은 자리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공동체들이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리가 되고, 경청을 통하여 해방의 길들이 열리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준비된 마음과 열정으로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사순 여정에 진심으로 저의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

[아부다비] 복사단 피정

- ▶ 일 시 : 2월 21일 (토) ~ 22일 (주일) 1박 2일
- ▶ 장 소 : Al Bahiya 근처 펜션

※ 피정을 통해 복사단 친구들이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캠] 상임 위원회 정기 회의



- ▶ 대 상 : 아캠 내 각 공동체 대표
- ▶ 일 시 : 2월 24일 (화) 21시 (UAE 기준)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으로 접속(회의 번호: 895 0419 9583, 비밀번호: 1004)
- ▶ 안 건 : 1) 사순 특강 2) 공동체별 활동 보고 등

[아캠] 전담 사제 공동체 사목 방문 일정

- ▶ 방 문 : 카이로(이집트) 공동체
- ▶ 기 간 : 2월 25일(수) ~ 2월 28일(토)



[프란치스코 센터] 2026년 1학기 온라인 신학원 개강

시간	요일	화요일	목요일	비고
10:00-10:50		006 시민 경제: 공적 신뢰와 공공 행복	117 관상과 실천 2: 그리스도교 행복론	*휴강: 4/2(목)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1:00-11:50		강영선 교수	한상봉 교수	
12:10 미사				
13:30-14:20		116 여성의 아들 예수	118 가톨릭 노년 영성 1: 성서신학적 접근	
14:30-15:20		김근수 교수	오상선 교수	



- ▶ 수강 신청: 문자 혹은 이메일 (+82-10-8630-6295 / franrfi@hanmail.net)

[교종 레오 14세] 2월 기도 지향

2월: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아, 결코 힘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카타르 공동체>: 본당 Family Bazaar



2월 13일(금) 4:00pm

<아부다비 공동체>: 견진성사



Congratulations.

‘이태영 미카엘’ 형제님의 견진을 축하합니다~!!



2월 17일(화) 7:00pm

‘설’

중동한인
AKCCME가
통리
공동체

함께하며, 하나되며
모습들

<쿠웨이트 공동체>: 설 맞이 공동체 야유회



2월 13일(금) 10:00am

<아부다비 공동체>: 설 위령 미사 및 설맞이 음식 나눔



2월 14일(토) 12:00pm

우리집
가훈을
소개합니다!



A Family in Christ

Family Value

Family Motto

Family Creed

한 해를 여는 우리 가정의 약속을 가훈으로 나눠 주세요.♡
성경 말씀에서 받은 은총과 가훈에 담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캠 새해맞이 '가훈 소개'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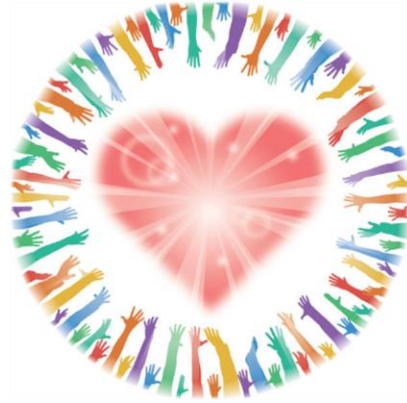
✓ 아캠 '가훈 소개' 이벤트 응모

- ▶ 응 모 기 간 : 2월 8일 (주일) ~ 2월 28일 (토)
- ▶ 참 석 대 상 : 아캠 공동체 내의 모든 가정
- ▶ 응 모 방 법 : 가훈을 정하게 된 계기가 된 성경 구절과 그 가훈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첨부할 이미지(가족 사진 등)를 포함하여 1,000자 내외의
사연을 작성해 사무국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응모를 통해 아캠 새해맞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가정의 가훈은 주보를 통해
소개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6 아캠 사목 표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Take Joy



'Together'

in Praying

시간을 내어 기회를 만들어 서로 자주 모여 친교를 이루는 것이 작년에 아캠 공동체의 나아가는 바였다면, 올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분의 '뜻'에 더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캠의 각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마태 18,19)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시편 34,16).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야고 5,16).

기도의 중요함을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저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아캠 온라인 기도 모임

- ▶ 기 간 : 1월 28일 (수) ~ 12월 30일 (수), 매주 수요일 21시 (UAE 기준)
- ▶ 참 석 대 상 : 아캠 공동체 내의 모든 교우
- ▶ 기도 모임은 공동체별로 한 주씩 돌아가며 이끌어 가고, 아캠 공동체 및 각 공동체의 기도 지향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캠 전담 사제 *김성인 미카엘 아미.*



WHO? In the BIBLE

‘성경’ 속 인물 이야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간 다윗 왕

중국 명나라 시대에 큰 도둑 떼가 국경에 몰려들었다. 왕양명(1472-1528)은 황제의 명령으로 국경 마을로 떠났는데 도둑들은 산속 깊이 숨어 있고 좀처럼 쉽게 정벌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읍에 있는 왕양명의 제자들이 학문을 게을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양명은 즉시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무리 험한 산속에 버티고 있는 도둑이라도 무찌르기를 계속하면 결국 정벌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속에 숨어 있는 도둑은 완전히 무찌르기가 정말 어렵다.” 스승의 편지는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에 정진했다고 한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유혹의 연속이다. 왕양명은 안 될 일인 줄 알면서 하는 것, 열심히 해야 할 때 피우는 게으름,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음속의 도둑이라 했다. 그는 이 도둑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저 혼자만 잘 먹고 잘살려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왕양명은 항상 곧은 마음으로 자신 속의 도둑을 물리쳐야 한다고 가르쳤다.

다윗왕은 어느 날 밤에 궁전을 거닐다가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그 여성은 밧 세바란 여성인데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다, 그의 남편은 충신 우리야였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를 시켜 여성을 데려와 정을 통했다. 다윗은 부하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 꾀를 냈다. 다윗은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에 보내 결국 그를 죽였다. 그후 다윗은 우리야의 부인을 아내로 삼았다. 다윗은 탐욕에 눈이 멀어 부하를 일부러 죽게 하고 그 아내마저 차지하는 죄를 지은 것이었다.

하느님은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어떤 성에 부자와 가난한 이가 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저런 세상에 그런 파렴치한 놈이 있단 말인가?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소리를 지르며 흥분한 다윗을 보고 나단은 결정구를 날린다. “그 파렴치한 놈이 바로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은 충신 우리야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차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하느님은 마치 대낮처럼 그 일을 온 천하에 비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소.” 다윗왕은 나단에게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위대한 성군으로 존경받는 다윗왕도 예상외로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뉘우칠 줄 알았던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한 그의 믿음을 높이 존경하는 것이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 허영업 마티아 신부의 <성경 속 인물> -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 세례 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오랫동안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소금 한 꼬집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
어쩌면 이러한 마음이
가장 훌륭한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월간 생활성서 '소금항아리'에서-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